제2회 인표어린이 도서관 Workshop 참관기

김 효 정 역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목 차

Ⅰ. 서 언
1. 제2회 Workshop의 배경
2. 제2회 Workshop 일정과 내용
3. 종합토의 및 건의사항
Ⅱ. 결 언

Ⅰ. 서 언

정보사회에서 우리 어린이가 분별력있는 소비자, 판단력있는 유권자 그리고 성실한 근로자와 유능한 성인(부모, 지도자)으로 자라도록 보살펴 키우는 의무와 책임은 모든 성인에게 있다. 정보사회에서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도록 개발해주고, 상상력을 자극하여 창조적 적응력과 인간성회복을 도모하게 할 수 있다. 또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가 즐겁게 책을 읽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창조적인 어린이로 자라도록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어린이종합교육프로그램이다. 그러므로 어린이도서관인은 도서관문화에서 어린이를 보살피는 중대한 역할과 책임을 져버릴수 없다.

인표어린이도서관은 현재 국내외 17개지역에 개관되어 명실 공히 한국어린이도서관의 샘터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초기에 개관되었던 도서관은 벌써 2년 반동안 적극 활용되고 곳곳에서 어린이도서관의 모형이 되고있다. 이 글은 인표어린이도서관 제2회 workshop에 참관하여 한국어린이도서관의 발전을 살피고 소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1. 제2회 Workshop의 배경

에스콰이아 사회과학재단은 우리나라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생각하는 어린이로 자라게 하려고 어린도서관문화를 제공하여 왔다. 1990년 5월 4일 노원구 상계동 소재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 인표어린이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전국 13지역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고 중국의 연길, 용정, 심양 및 러시아의 유즈노사할린스크, 알마타(9월15일개관예정)는 어린이도서관뿐 아니라 잊혀지고 잃어져가는 우리 말과 글을 지키려는 마음에 힘과 빛이되어 우리 민족문화의 영원한 샘터로 전망되고 있다.

인표어린이도서관은 에스콰이아 사회과학재단 한국사회과학도서관에 그 본부를 두고 있다. 본 본부는 재단의 지원으로 각 인표어린이도서관의 개관을 주관하고 개관 후 10년간 신간 자료지원과 어린이도서관 봉사프로그램 운영을 지도조언하여 각 도서관의 활성화와 자생력을 도모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있다. 개관과 동시에 자료와 시설은 모기관에 기증되고 따라서 어린이도서관의 운영 책임은 모기관에 있다.

제1회 workshop은 1992년 1월 13일에서 15일까지, 한국사회과학도서관 세미나 E실에서, 인표어린이도서관인과 이인표 회장, 관련인사 및 서울시립공공도서관의 어린이담당도서관인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제1주제, 어린이와 도서관(한국도협 사무국장 김경일), 제2주제 어린이도서관의 봉사활동(중대 교수 김효정)의 주제강연과 구로 종합복지관 유

정길관장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제2일은 각 지역 도서관 활동보고와 경인지역인표어린이도서관 현장견학으로 어린이도서관인의 의식과 사명감을 확인하고 상호우의를 다졌다. 제3일은 1992년 봉사프로그램안을 협의하고 매년 workshop개최를 요망하며 종합토의와 건의 사항을 채택하였었다. 인표어린이도서관인은 이 workshop을 통하여 서로 깊은 감명과 자극을 받았고 어린이도서관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과 자신감을 얻었다. 다만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모기관의 인식은 아직 미흡하나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기틀을 마련하는 최초의 모임이라는 데 자긍심을 가졌었다.

제2회 본 workshop은 해외 도서관 개관 업무로 1년반만에, 어린이도서관인의 열망속에 에스콰이아 사회과학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개최하여, 1) 어린이도서관인의 역할과 책임의 확인 2) 어린이도서관인들의 한 자리 만남으로 상호자극과 보완을 통한 유대 강화와 더불어 어울리는 자아개발 3) 1993년 봉사프로그램안 협의 및 각 도서관의 현황 및 보고를 종합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인표어린이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한국어린이도서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제2회 Workshop 일정과 내용

본 workshop의 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기 간 : 1993년 7월1일-7월3일
장 소 : 대전 유성컨트리클럽 소회의실
참가자 : 인표어린이도서관인과 관계요원

제1일 12 : 00 도착 및 방 배정
12 : 30-12 : 55 개회선언 정혜경 본부장
인사말 이봉순 한국사회과학도서관관장
13 : 00-14 : 40 주제강연 김효정 중앙대학교 교수「어린이도서관인의 역할과 책임」
15 : 30-17 : 50 분관 현황 발표 : 상계 외 7개 분관
사회 : 최연희
17 : 35-18 : 30 본부현황 및 해외 도서관 발표

제2일 9 : 00-13 : 00 대전 중리와 청주 산남 인표어린이도서관 현장 견학 및 간담
14 : 00-17 : 30 분관 현황 발표 : 대구 외 6개 분관
사회 : 최연희
17 : 30-18 : 30 종합 토의

제3일 9 : 00-13 : 30 평가회 및 건의
사회 : 정 본부장
1. 1993년도 프로그램토의
2. 건의사항
3. workshop총평
13 : 30 폐회 선언 정 본부장

본 workshop은 인표어린이도서관인 13명과 본부 요원등 18명이 참석하여 정본부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사회과학도서관관장이고 인표어린이도서관 자문위원인 이봉순관장이 "이회장님을 대신하여 제2차 workshop개최를 축하하고 인표어린이도서관이 잘 발전하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우리나라 풍토에서 도서관이 걸어가는 길이 어렵고 외로운 길이며 그 중 어린이 도서관을 가꾸고 키워나가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어린이의 길잡이가 되어 어린이답게 자라도록 키워주고 보살피는 일은 우리 어린이의 밑거름이기에 여러분의 수고를 더 높이 봅니다. 일년에 한번씩 같이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며 재충전하는 기회로써 이 workshop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 workshop은 여러분의 것이고 가꾸고 키워서 보람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을 의지하거나 본부만을 바라보지말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사명감이 있으면 일은 쉬워질 것입니다. 서로의 회포를 풀고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배우고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빕니다"는 인사의 말씀이 있었다.

주제강연은 어린이도서관인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정보사회에서 어린이도서관인의 도서관에 관한 지식과 기본기술 그리고 태도를 분석하였다. 어린이도서관인은 어린이가 1) 넘치는 정보에 압도당하고

조정당하기 보다 정보의 정복자가 되고, 2) 열심히 공부하고 평생 독서를 즐기며 문제의 해답을 찾는 기본기술(skill)을 개발하고 3) 지력, 상상력 그리고 가치를 지닌 미래를 개발하도록 어린이를 보살펴야하고, 어린이가 많이 아는 일과 아는것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일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어린이도서관인의 역할과 책임을 역설하였다.

정 본부장 사회로 참가자가 자기소개를 하였고, 정 본부장이 제1회 workshop후 개관사항과 해외 어린이도서관과 본부의 현황을 함께 보고하였다. 현재 개관된 도서관의 개관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각 인표어린이도서관 활동은 최연희 사회로 발표되었다. 각 어린이도서관은 1992년 협의된 프로그램 안을 중심으로 그 도서관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다음과

〈표 1〉 인표어린이도서관 개관현황

개관일자	이 름	사 서	장서수	평수	기 관
90. 5. 4	북부종합사회복지관	허진행	5,403	33	한국봉사회
90.10.22	부산장선종합사회복지관	배경미	5,273	34	장선사회복지회
90.12.20	광주북부종합사회복지관	정승아	5,421	36	한국어린이재단
91. 4.11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윤문선	5,107	48	은평전사원
91. 4.19	진도 고성국민학교	김병준	6,130	53	고성국교
91. 5. 6	태백기독교사회복지관	박은미	5,542	49	기독교광산촌 사회복지회
91. 8. 8	월곡종합사회복지관	김혜영	5,186	53	생명의 전화
91.10. 5	연길소년아동도서관	전인옥	4,036	34	연길시립소년 아동도서관
91.11.12	내진중리종합사회복지관	양보영	5,312	52	원불교 삼동회
92. 1.21	인천삼산종합복지관	예은숙	5,178	53	인천 YWCA
92. 3.12	월싱카톨릭종합사회복지관	황애영	5,234	63	대구 대교구 카톨릭 사회복지회
92. 5. 6	청주산남종합사회복지관	이영희	4,978	42	천주교 천주교회 유지재단
92. 7.31	부산동래구종합사회복지관	이정경	5,038	40	한국 선명회
92. 8.19	중국용정시도서관	태화옥	4,911	37	용정시 도서관
92.12.15	가양 제7종합사회복지관	이현경	5,578	53	사랑의 전화
93. 1.14	소련사할린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협회	문경자	5,011	30	소련사할린 한인협회
93. 4.15	중국 심양시 소가둔구 조선족중심 소학교	김신희	5,098	54	동방조선민족 전통문화연구소

같이 보고되었다.

상계 : -개관 2주년이 지나, 어린이도서관 봉사는 6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이 외에도 종이 접기, 어린이시조놀이, 14명 다독상 수상 등을 시행하였다. 저조해지려는 독서카드는 활성화방안으로 독서기록장 쓰기로 바꾸고, 저학년은 어린이도서관인과 같이 책읽기를 부분적으로 추진 중이고, 월 1회 상담을 통해 복지관과의 협력관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장선 : -예정된 6개 프로그램 이외 동화구연, 크리스마스카드만들기, '끼리끼리'(어린이자원봉사) '책나라이야기(8p)' 신문제작을 진행하고 낙서판 '우리들 세상'을 만들었다. 지역사회의 문화와 빈부 격차로 어려움은 있으나 개관 당시 보다 꾸준하게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와 접촉할수록 깊이있는 독서교육과 독서상담에 어려움을 느낀다.

광주 : -예정의 기본 프로그램 이외 책소개활동을 전개하고 독서카드는 독서노트 독서수첩을 병행하고 독서카드 완료후 학교에서 시상하게 하였다. 이웃 국민학교의 전용 도서관으로 인식되어있고 공공기관과 단체에서 인표어린이도서관 방문이 많다. 개관 1주년을 맞아 어린이도서관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요한 사항은 저학년보다 고학년 이용률이 높고 (35.5% : 64.5%) 도서관을 알게된 동기는 친구를 통하여가 73.4%로 단연 수위였고 1년 이상 계속 도서관 이용자는 44.8%로 꾸준한 도서관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도서관 이용이유는 책을 보러 47.0%, 친구와 사귀러 8.9%, 숙제하러 5.6%였다. 결국 어린이도서관은 양질의 자료와 쾌적한 환경 구비가 선결되어야하고 올바른 독서교육과 도서관이용지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이 눈높이에서 책을 선택하여 읽는 습관을 익히게하고 어린이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구로 : -기본 프로그램 이외 6.25자료전시, '또래와 뚜리'(자원봉사자 확보), 독서퀴즈를 시행하였고 이웃학교들과의 유대강화로 도서관이용이 증가되고 있어 자원봉사자(성인)활용이 시급하다. 개관 1주년을 기하여 도서관이용실태를 조사하였고 "늘 책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11p) 어린이신문을 제작하였다. 어린이독서교육과 상담에 관한 전문 지식이 요망된다.

진도 : -인표어린이도서관인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도서관운영에 깊은 감명과 자극을 받았고 유일하게 국민학교에 설치되었으나 전교생수의 감소에 의하여 이용자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태백 : -광산촌 무료시설에서 오는 무관심에 의하여 이용률이 다른 도서관보다 적다. 사회와 학부모, 학교와 교사의 관심을 집중시킬 복지관의 노력과 협조가 요망된다.

월곡 : -예정 프로그램 이외 특별한 봉사는 독서클럽활동이다. 1992.5.10-1993.5.22까지 25차의 모임을 개최하여 10명의 신청회원에서 6명이 제1기 수료를 끝내었다. 그 중 4명은 독서클럽활동을 계속할 뜻을 밝혔고 제2기를 모집중이다. 독서클럽지도자는 이대대학원 재학생의 자원봉사로 충당되었고 보람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연길 : -국내 도서관과 달리 감상화는 저조하였으나 동화구연은 월등하게 잘 진행되었고, 독서퀴즈는 인기있고 역사책을 읽히기 위하여 하루에 역사지식 한 문제씩 답하게 하였다. 인접 지역 어린이도 버스편으로 와서 하루에 5~6책씩 애니매이션등을 읽는다. 이용자 자신이 읽은 책을 자신의 수첩에 기록하는 방법을 택하고 아침 8시~오후 5시까지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한다. 어린이도서관인 수는 4명이고 이웃한 소학교가 8개교로 주말 도서관이용률은 높다.

중리 : -기본 프로그램 이외 한밭도서관견학, 어린이날 청백운동회, 독서상담기록부, 옛친구에게 편지쓰기, 개관 1주년 돌잔치를 진행하였고 자원봉사자 어머니를 표창하였다. 대전시에서 어린이도서관의 모범으로, 복지관의 꽃으로 시당국의 인정을 받고 있다.

삼산 :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주민의 90%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애니매이션과 잡지를 많이 읽고, 노인봉사자 2명의 지원을 받고 있다. 복지관예산에 도서관 부분이 없고 국민학교와의 관계개선이 요망된다. 게시판을 이용하여 하루에 한자씩 한자를 소개하고 학습자료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다.

월성 : -기본프로그램 이외 개관1주년 장기대회를

개최하고 월간신문 "우리네 이야기"를 제작하고 단지내 어린이선도 결식어린이후원 불우어린이캠프를 복지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산남 : -독서퀴즈를 흥미있게 진행하였고 유아원 어린이에게 이야기들려주기 어머니한글교실을 운영하고 복지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동래 : -개관1주년 야외 글짓기 대회를 계획하고, 3월 새학기에 이용어린이 감소를 보였으나 어린이도서관 봉사프로그램진행후 평소보다 30-40% 증가하였고, 학교숙제를 위하여 오는 어린이가 계속 증가추세이다. 학교에 가지않는 어린이도 이용하고 있으나 학교와의 유대관계는 어려움이 있다.

용정 : -감상화 동화구연 편지쓰기를 진행하였고 이웃소학교 3개 학교에서 관심을 표하고 있고 어린이도서관인은 2명이고 토, 일요일에는 200명의 어린이가 이용한다. 중국 용정시 도서관 3층에 1992년 8월 19일 개관하였다.

가양 : -영구임대아파트내 장애 및 결손가정어린이가 50%이상이다. 저학년 이용률이 높고 양부모취업으로 취학어린이 이용을 막을 수 없다. 개관 직후 이용지도에 중점을 두었고 어린이도서위원을 확보하여 독서클럽으로 유도하려한다. 책소개 게시판을 운영하고 복지관계획에 따른 계절학교를 계획중이다.

사할린 : -소련 사할린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협회 회관 2층에 지역 특성에 맞추어 저학년 자료와 어학교육자료, 실용적인 성인용 자료 약간이 포함되

〈표 2〉 16개관 도서관이용현황

분 관	기 관	이용어린이	이용 권수	1일이용자	순 위
북 부	'92. 1. 1~12.31	31,679명	61,635권	117명	4
부 산	'92. 1. 1~12.31	21,177명	42,073권	73명	8
광 주	'92. 1. 1~12.31	30,140명	75,474권	103명	5
구 로	'92. 1. 1~12.31	37,377명	85,885권	127명	2
진 도	'92. 1. 1~12.31	6,790명	11,371권	38명	10
태 백	'92. 1. 1~12.31	20,987명	60,662권	73명	8
월 곡	'92. 1. 1~12.31	36,563명	133,318권	124명	3
연 길	'92. 1. 1~12.31	37,993명	179,647권	90명	6
대 전	'92. 1. 1~12.31	30,925명	94,944권	101명	7
인 천	'92. 1. 1~12.31	36,595명	138,359권	142명	1
대 구	'92. 3.13~12.31	36,633명	121,089권	162명	
청 주	'92. 5. 7~12.31	26,473명	86,870권	163명	
동 래	'92. 8. 1~12.31	12,451명	50,884권	95명	
용 정	'92. 8.20~12.31	6,654명	45,625권	68명	
가 양	'92. 1. 1~12.31	3,596명	13,635권	327명	
심 양	'93. 4.16~12.31	14,986명	19,253권	163명	
합 계		391,019명	1,220,724권	1,966명	

었다. 잊혀지고 잃어버린 우리 말과 글 그리고 민족 문화 샘터로 인표어린이도서관에 기대가 크다. 눈물을 흘리는 60-70대 노인이용자도 있고 이웃교회와 함께 어린이도서관에서 어학교육프로그램을 계획중이다.

심양 : -중국 심양시 소가둔구 조선족 중심소학교에 동방조선민족 전통문화연구소 주관으로 4월 15일 개관되어 일일 200명의 어린이가 이용한다.

현재 개관 완료된 전국의 인표어린이도서관 이용현황은 〈표 2〉와 같다.

제2일은 workshop 장소와 이웃한 대전 중리 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경순)과 청주 산남 종합복지관(관장 장영숙)의 인표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하여 환대를 받고 간담을 나누었다. 인표어린이도서관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명감을 일깨우는 두관장의 격려의 말을 들었고 현장을 비교 견학하여 어린이도서관의 실체를 다시 확인하였다.

3. 종합토의 및 건의사항

제3일 정 본부장 사회로 92년도 종합토의와 건의사항을 들어 그 실천사항을 확인하고 오전 12 : 30까지 진지하게 종합 토의하고 건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종합토의

1) 93년도 봉사프로그램은 예년과 같이 본부에서 함께 협의한 프로그램 중 3개를 택하고 각 도서관의 여건에 맞추어 적절한것을 택하되 연 4~6개의 프로그램은 진행할것. 협의된 93년도 봉사프로그램안은 〈표 3〉과 같다.
2) 비디오 자료는 특별히 우수한 자료일 경우만 본부에서 소장하고 각 도서관이 필요에 따라 소재지에서 입수하여 상영할것.
3) 모든 자료의 분류용 색 표지를(특히 동시) 본

〈표 3〉 인표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案

년도 / 종류	'91년도案	'92년도案	'93년도案
읽고 표현하기	• 어린이 날 "내가 되고 싶은 인물" 글 또는 그림 • 독서감상화 •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 동화대회	• 어린이 날 "내가 되고 싶은 인물" 글 또는 그림 • 독서감상화 (공동작업) • 저자,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 동화대회	• 독서Quiz대회 • 독서감상화그리기 • 주인공에게 편지 글 쓰기 • 동화구연 • 내가 되고 싶은 인물 또는 내가 본받고 싶은 인물 표현 하기 • 끝 줄거리잇기 • 후속편 쓰기
듣고 보기	• 체험담 듣기 • 명작비디오 • 이야기 들려주기	• 명작비디오 • 이야기 들려주기	〃
집단 활동	• 독서 클럽 • 정보 및 자료제공 독서상담, 이용교육	• 도서위원제 • 정보 및 자료제공, 독서상담, 이용교육	〃

부의 지원으로 정비하고, 서명카드는 본부에서 준비할것.

4) 독서카드는 개관한 도서관을 제외하고 독서노트 독서수첩 독서기록장 등 각 도서관에 적당한 형태로 바꾸어 활용할것

5) 개관한 시일이 경과할수록 깊이있는 어린이와의 접촉에서 어린이성장발달, 독서교육, 상담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재교육과 자체 연구, 또는 연수가 절실히 요망된다.

건의사항

1) 어린이도서관인 근무 여건 개선
2) 학습참고자료의 보완
3) 신간자료의 신속 지원
4) 인표어린이도서관 PR용 자료의 제작
5) 급박한 전문지식의 갈망을 해결할 선처를 요망함

본 workshop에 참가한 각 어린이도서관인은 자체평가에서, 2박3일간 각기 다른 의견과 활동 보고를 통하여 자연스럽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서로 의사를 교환하며 자극과 격려를 받았고 사명감과 자긍심도 얻어 한국 어린이도서관 발전에 두번째 초석을 놓았음을 확인하였다. 외롭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강화된 동료의식을 바탕으로 전문직어린이도서관인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역할과 책임을 다 할것과 인표어린이도서관과 인어회(인표어린이도서관인 모임)의 발전 방향 모색을 다짐하였다.

II. 결 언

본 workshop은 어린이도서관인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며, 국내외 인표어린이도서관이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모형으로 그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볼수 있었다. 어렵고 외로워도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열정을 불태우는 인표 어린이도서관인의 의식성숙이 돋보였다. 2년전 개관하였던 도서관에서 부터 개관한지 얼마되지 않은 도서관까지 담당도서관인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협의를 통하여, 서로를 비교 검토하면서 문제제기와 그 해결책 탐색이 보다 쉽게 진행되었다. 또래와 뚜리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실험의 현장이었다. 또 어린이도서관인의 현장감각이 현 시점에서 긴급한 문제를 제시한다는 사실은 어린이도서관의 발전에 긍정적인 시사이다. 결국 전문인으로서 자질확충을 갈망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인표어린이도서관의 성숙과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정착을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도서관 봉사활동은 협의한 프로그램진행 이외에 각 도서관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었으나 국내에서 인기리에 수행한 감상화를 중국에서는 어려워하고 대신 국내에서 별로 진전을 보이지 않는 동화구연이 중국에서는 성황을 이루었다. 이 봉사프로그램의 효율화는 어린이도서관을 매력있는 어린이문화 샘터로 장식하고 있다.

어린이도서관인의 확고한 신념과 우수한 자질이 효율적인 어린이도서관운영에 핵심임을 입증하고 있고 우수한 자질 확보를 위한 재교육과 자체 연구, 또는 연수가 월별로 요청되었으나 전국적인 규모이기에 적어도 연 2회로 협의한 사실은 본부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사항이다. 더욱 각 도서관의 자생력을 전제할 때 전문인으로서 어린이도서관인의 교육프로그램은 기본사항이다. 이론과 실제가 더불어 어울리는 교육과 연수의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꿈과 희망을 어린이에게 전하려 노력하는 인표어린이도서관인의 열성과 노고를 높이 사고, 이를 지원하는 두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기대해 본다.

제2회 인표어린이도서관 workshop은 미리 정보사회에서 생각하는 어린이 정보의 주인되는 어린이를 키우려는 우리나라 어린이도서관계에 두번째 초석이었다. 20~30년 후를 전망하여 우리 어린이가 어린이답게 자라도록 어린이도서관계에 어린이문화 역군인 어린이도서관인의 자질 함양에 그 지원을 아끼지않는 에스콰이아 사회과학재단에 감사하는 마음이다.